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동역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현장의 땀방울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이곳 베트남 땅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의 노래를, 메마른 심령에 찬양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을 기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 1. 닥락 5개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지난 6월 초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닥락 지역의 5개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 땅의 영혼들은 저마다 도시의 아픔과 남모름 눈물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섬김(여름 성경학교 선물)을 통해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 방황하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2. 사랑의 도시락과 잉칸병원 사역



2025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멈추지 않고 달려온 '사랑의 도시락' 사역이 최근 더욱 풍성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냐짱(Nha Trang)을 방문한 단기 선교팀들이 이 귀한 걸음에 동행해 주어 사랑의 무게가 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잉칸병원 관계자분들과 의료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해 줄 때,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잉칸병원 전역에 비추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말을 하지 못해 마음으로 소통하는 환우 청년 '비'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3. 반주자 학교: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반주자 양성 사역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기존 반주자 6명과 새롭게 문을 두드린 신입생 5명, 총 11명의 학생들이 모여 아름다운 선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실력이 있는 학생이 초급 학생을 이끌어주는 '짝꿍 시스템'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반주자 양성 사역을 통해 이 땅의 무너진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찬양이 온 베트남 땅 가득히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합니다.

## ●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기도 제목

### 1. 잉칸병원과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위하여

사랑의 도시락 사역과 선교팀의 발걸음을 통해 잉칸병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환하게 비추이게 하소서.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2. 반주자 양성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반주자 학교를 통해 훈련받는 이들을 통해 베트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하소서. 이 사역이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말씀과 찬양으로 바로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 3. 닥락 5개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7월 23일까지 이어지는 닥락 지역 5개 교회의 여름성경학교와 캠프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아파하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잔치가 되게 하소서.

서.

4. 사역자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저희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 안에 먼저 놀라운 치유와 영적 회복의 역사가 흐르게 하소서.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보내주시는 사랑과 기도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베트남 사역 현장에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이동주, 최연실 선교사 올림



